

한국자활복지개발원, 7개 지자체와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협약

#자활사업
#협약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7개 지자체와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협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 이하 개발원)은 4월 30일 개발원(서대문구 충정빌딩) 9층에서 서울 영등포구, 인천 미추홀구, 강원 양양군, 인제군, 전북 군산시, 김제시, 충남 부여군 7개 지자체와 ‘2024년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이하 ‘인프라 구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프라 구축 사업**’은 개발원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기업 공동 인프라 및 지역자활센터의 신축·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에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정해식 원장은 “개발원은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 허브, 자활근로 사업장 통합 운영을 위한 지역자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 3년차를 맞이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등 자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